

# “맛과 흥 버무린 벌교 꼬막축제로 오세요”

11월 4~6일...3년만에 대면 행사  
비빔밥 나눔·꼬막 무료 시식회  
가요제·어울림마당 등 다채



지난 2019년 열린 벌교 꼬막축제에서 1000인분 꼬막 비빔밥을 만드는 모습.

〈보성군 제공〉

“정정 갯벌의 보물 꼬막, 꼬막 맛보러 오세요.” 제 19회 벌교 꼬막축제가 오는 11월 4일부터 6일까지 벌교천변과 벌교전통시장 공용주차장 일원에서 개최된다.

3년 만에 열리는 이번 벌교 꼬막 축제는 ‘정정 갯벌의 보물 꼬막! 벌교사랑’이라는 주제로 열린다. 진흥제를 시작으로 꼬막가요제, 꼬막비빔밥 나눔 행사, 꼬막 무료 시식회 등 다채롭고 풍성한 행사 프로그램들로 꾸며진다.

축제 첫째 날인 4일은 행사개막 길놀이, 지역에 술인 공연과 꼬막 노래자랑, 꼬막 민속웃놀이 이벤트 행사가 열린다.

이어 5일에는 보성채동선합창단공연, 1000인분 꼬막 비빔밥 만들기, ‘제23회 읍민의 날 기념식’과 함께 ‘제19회 벌교꼬막축제 개막식’과 유명 가수 공연이 열린다.

개막식과 함께 진행되는 축하쇼에는 국내 유명 가수인 송대관과 김성환, 배일호, 최유나, 우연이 등이 출연하고 개막식이 끝난 후에는 화려한 불꽃쇼 등이 진행되어 축제의 열기를 더할 예정이다.

마지막 날인 6일은 퓨전국악 보성소리공연, 꼬막까지 경연, 바퀴 달린 날베타기대회, 청소년 끼콘테스트, 어울림마당으로 축제가 마무리된다.

벌교는 전국 꼬막 생산량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꼬막 주산지로 수산물지리적표시 제1호 벌교꼬막과 국가중요어업유산 제2호로 지정된 보성태백어업,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등록된 보성벌교갯벌을 보유하고 있는 곳이다.

꼬막축제가 열리는 보성군 벌교읍은 태백산맥의 주무대로 대한민국 문화기행 1번지로 꼽히며, 민족음악가 채동선 선생 고향이기도 해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예향의 고장이다. 보성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3년 만에 열리는 벌교 꼬막축제는 방문객을 위한 다채로운 행사 프

로그램을 마련했다”며 “전국 최대 꼬막 산지인 벌교에서 잊지 못할 추억을 남기길 바란다”고 말했다. /보성=김용백 기자 kyb@kwangju.co.kr

## 순천시 AI 방역로봇 운영 내년엔 정원박람회까지 확대

순천시가 인공지능(AI)과 최신방역 기술을 결합한 ‘AI 방역로봇’을 도입해 운영에 들어갔다.



순천시는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감염 상황에 효과적인 방역조치로 보건소와 도서관을 방문하는 시민과 공무원의 건강을 위해 AI 방역 로봇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AI 방역 로봇은 자율주행하면서 공기뿐만 아니라 바닥까지 살균이 가능하고 기존 분무 방식이 아닌 인체에 무해한 플라즈마 방식으로 공기 중 세균과 바이러스를 99% 이상 살균한다. 또 공기 청정 필터로 미세먼지와 유해가스를 제거하며 저속 이동 중 장애물 회피와 인체 감지로 뛰어난 안전성을 갖췄다.

시는 보건소와 도서관 구석구석을 주행하면서 바닥 살균까지 하는 AI 방역 로봇이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순천시 정보통신과 관계자는 “시민들이 로봇에 거부감 없이 반응하는 모습을 보며 공공기관에서도 시민들을 위한 로봇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하는 시기가 온 거 같다. 특히 그림책도서관의 경우 어린이들의 관심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순천시는 내년에는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도서관, 보건지소 등 시민의 이용이 많은 실내 장소를 선정해 방역 로봇 도입을 확대할 계획이 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 미국 감동시킨 ‘순천소녀시대 할머니들’ 스토리

순천시립그림책도서관  
컬럼비아시 미주리대 아시아센터와  
글로벌 온라인 북토크 열어



온라인 북토크를 연 ‘순천소녀시대’ 할머니들.

〈순천시 제공〉

‘순천소녀시대’ 할머니들이 북콘서트를 열고 미국 독자들에게 감동스토리를 전했다.

순천시립그림책도서관은 지난 21일 미국 전역의 60여 명의 독자들을 대상으로 순천소녀시대의 할머니 작가와 함께하는 북토크를 온라인으로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순천시의 자매결연 도시인 컬럼비아시의 미주리대 아시아센터와 협력해 진행됐으며 컬럼비아시 시민뿐 아니라 미국의 동부와 서부 등 전역에 걸쳐 한국에 관심 있는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이 함께했다.

북토크에서는 여든을 앞두고 낯익은 데뷔한 순천 할머니 작가들의 솔직하고 따뜻한 입담뿐 아니라 할머니들의 그림을 지도하는 김중석 작가가 들려주는 순천소녀시대의 비하인드까지 다양한 이야기가 쏟아졌다.

한편 미주리대 아시아센터는 1998년 미국 미주리주 정부와 미주리대학교가 공동 출연한 대학부설기관으로 아시아 기구의 대학교, 정부 기관, 기업체 등을 대상으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고 있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북토크를 통해 나라와 인종, 문화를 뛰어넘어 순천소녀시대의 따뜻한 감동 스토리와 할머니들의 그림과 글이 담긴 그림책으로 모두 하나가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

## 더 돈독해진 순천시-日 이즈미시

자매결연 10주년...日 행정단 초청 기념행사

흑두루미 보전을 목표로 만난 한국 순천시와 일본 이즈미시가 교류 10년을 맞았다.

순천시는 일본 이즈미시와의 자매결연 10주년이 도래함에 따라 이즈미시 행정단을 초청해 기념 행사를 갖는 등 양측의 교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순천시에 따르면 양 자치단체는 자매결연 10주년 기념으로 전날 순천만국가정원 내 이즈미시 정원의 표지석 제막식을 열고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 행사는 코로나19로 상호 방문이 끊긴 지 3년 만에 재개된 국제 교류도시 방문으로, 2019년 11

월 지역특산품을 홍보하는 행사인 ‘이즈미시대산업제’에 순천시가 참가한 이래 처음이다.

이번 방문에는 요시다 사다오 이즈미시 부시장을 비롯해 타노우에 마유미 이즈미시의회의장, 오우쿠보 테츠지 교육위원회교육장 등이 참여해 순천시와의 교류를 위한 이즈미시의 행정·의회·교육 분야에서의 협력 의지를 나타냈다.

순천시와 이즈미시는 흑두루미를 보전하기 위한 목적 등 2012년 자매도시 협약을 체결했다.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와 청소년 교류 등 문화·관광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있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 여수서 역대 최대 ‘세계한인경제인대회’

27~30일 여수세계박람회장...67개국 1000여명 참석

‘제26차 세계한인경제인대회’가 27일부터 30일까지 여수세계박람회장에서 개최된다.

이번 행사는 ‘한민족 경제 네트워크 구축 및 활용’이라는 주제로 전라남도도와 여수시, 세계한인무역협회가 공동 주최한다.

세계한인경제인대회가 여수에서 열리는 것은 2014년(제19차)에 이어 두번째다.

4일간 진행되는 이번 대회는 27일 ▲투자환경 설명회 ▲개회식 ▲전남도지사과 여수시장 공동 주최 만찬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일정에 들어간

다. 주요 행사로는 ▲통상위원회 회의 ▲수출상담회 ▲Trade show ▲미국·베트남 해외시장 진출 설명회 ▲차세대 글로벌 네트워크 포럼 ▲여수국가산업단지 투어 등이 있다.

아울러 대회 기간 여수세계박람회장 디지털갤러리에서는 2026여수세계박람회 홍보관, 지역 특산물 전시관 등도 운영돼 경제인들의 눈길을 끌 전망이다.

/여수=김창화 기자·동부취재본부장 chkim@

## 여수시 ‘먹거리 정책’ 밀라노협약상 대상

파리 등 세계 240개 도시 참여  
공급·유통분야 모범사례 꼽혀

여수시가 먹거리 정책에 탁월한 성과를 보인 도시에 주어지는 ‘밀라노 협약 어워드’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시에 따르면 지난 19일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2022 밀라노 도시먹거리정책협약(MUFPP) 먹거리 정책 우수도시 시상식’에서 여수시가 공급·유통분야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사진)

먹거리 분야 세계 최고 권위의 상인 밀라노협약상(MPA)은 파리, 런던, 뉴욕 등 세계 240여개 도시가 참여하는 밀라노 도시먹거리정책협약에서 협약 이행과 지속가능한 먹거리 정책에서 우수한 성과를 낸 도시에 주어진다.

여수시는 2015년 밀라노 엑스포에서 발의된 ‘세계먹거리 정책협약’에 가입해 지구촌 식량문제에 관심을 표명했고, 올해 처음 응모해 수상하는



패거를 올렸다. 특히 올해는 역대 가장 많은 133개 도시, 251개의 사례가 응모된 가운데 여수시가 제출한 ‘코로나19시대 지역학생과 소 농장 보호를 위한 사례’가 혁신적인 마케팅 전략으로 평가받아 공급·유통분야 최고 모범사례로 선정됐다.

여수시는 10월 17일부터 19일까지 열린 시상식과 MUFPP 글로벌 포럼에 참석해 라운드테이블

토의로 모범 사례를 공유하기도 했다.

여수시 관계자는 “급격한 기후변화와 식량위기로 먹거리 정책의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는 상황에서 의미 있는 상을 수상하게 됐다”며 “우리는 시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과 먹거리 정책 발굴,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먹거리 조례를 제정하고 관련 위원회도 운영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화 기자·동부취재본부장 chkim@

## 간전 효죽·논곡 마을 전기안전 취약가구 점검

구례군-한국전기안전공사, 하반기 전기안전토털서비스

구례군과 한국전기안전공사 전남동부지사가 전기안전 취약가구를 찾아 하반기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구례군은 지난 17일 한국전기안전공사 전남동부지사와 간전면 효죽·논곡 마을에서 전기안전 취약가구를 위한 ‘하반기 전기안전토털서비스(그린타운) 봉사활동’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날 봉사활동은 강수일 지사장을 포함한 한국전기안전공사 전남동부지사 직원들과 간전면 복지공동체 대원 20명이 참여, 전기 안전이 취약한 100가구를 방문해 가정 내 전기 시설물을 무료로 개보수 하고 점검을 하는 봉사활동을 펼쳤다.

김순호 군수는 “취약계층은 낡은 전기시설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경제적 부담 때문에 방

치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봉사활동이 전기 안전 취약계층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며 우리 군의 전기안전복지에 적극 협력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다.

강수일 한국전기안전공사 전남동부지사장은 “농촌에는 노후주택이 많고 낡은 전기 설비도 많아 안전사고로 이어지기 쉽다”며 “우리 공사의 지원을 적극 활용하여 구례군의 전기안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5월 구례군과 전기안전공사는 전기안전 긴급 고충 처리와 상호 간 우호 증진을 위해 1사 1촌 자매결연을 맺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전기안전 점검 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kwangju.co.kr